가정예바

은혜를 깨달을 때 사랑하게 된다

성경 누가복음 7:36-50

신 67 쉐마 대화

일어날 때 아침에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집에 있을 때 식사 중에 말씀으로 격려해 주세요.

은혜를 누리는 하루 되세요. 은혜를 누리는 가정이 되도록 해요.

길을 갈 때 길을 갈 때 말씀을 적용해 주세요.

누워 있을 때 잠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은혜를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찬양

│ 내게 있는 향유 옥합(은혜의 찬양 60장)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 1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 2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 3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 주소서

2 그 자비하신 주님(찬송가 253장)

- 1 그 자비하신 주님 날 불러 주시고 주 귀한 보혈 흘려 날 씻어 주시니 내 죄가 흉하여도 날 깨끗게 하사 그 귀한 보혈로써 날 구원하시네
- 2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주께 이끌어 그 넓은 주의 마음 날 용서하시네 그 크신 주의 은총 큰 기쁨 주시며 나 주의 영광 잔치 참여케 하시네
- 3 주 성령 우리 맘을 주께로 이끄니 나 주의 은총 입고 주 찬양합니다 주 성령 내게 오사 나 방황할 때에 늘 인도하여 주사 실족케 마소서
- 4 주 넓은 가슴 안에 날 안아 주시고 내 마음 슬플 때도 날 위로하시네 나 절망할 때에도 주 인도하셔서 이 세상 끝 날까지 늘 함께하소서





말씀읽기 누가복음 7:36-50

- 36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 37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 38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 를 부으니
- 39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들
- 40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 41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오백 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오십 데나리온을 졌는데
- 42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 43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 44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 45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 46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 **47**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 48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항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 49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 50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본문배경

시몬이라는 이름의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와서 함께 식사하기를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아 그가 초청한 사람들과 식사하셨습니다. 그 동네에 살던 죄 많은 한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여인은 향유 담은 옥합을 들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향했습니다. 바리새인의 집에 도착하자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으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여인의 이런 행동을 본 바리새인은 못마땅해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예언자라면 그 여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피하셨을 텐데 피하지 않으셨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39절)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알고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오백 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오십 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41-42절). 시몬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43절). 예수님은 시몬의 대답이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시몬의 판단이 잘못되었음

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시몬은 손님으로 초대된 분에게 당연히 제공해야 할 발 씻을 물이나 환영의 인사, 머리에 바를 감람유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인 취급당하던 외부인이 예수님을 더 큰 감사로 영접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과 행동에 예수님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50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향유를 부어드려서 죄 사함과 구원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많은 죄를 용서받아 더 큰 감사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 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 관찰

- 집에수님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36-38절)
 - 답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해설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시는 도중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나타나 향유를 예수님 께 붓는 일이 벌어졌습니다.(38-39절) 시몬은 예수님이 죄인의 행동을 막고 멀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사랑 표현을 다 받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과거에 실패했거나 넘어졌던 일들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과거의 삶과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고백하면, 주님은 다 받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이 바로 주님의 은혜를 받기에 가장 빠른 날입니다.

- 2 예수님은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47-48절)
 - 답 예수님은 여인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해설 예수인은 바리새인 시몬에게 질문하십니다.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오백 데나리온을 졌고, 다른 한 사람은 오십 데나리온을 졌는데 둘 다 탕감을 받으면 두 사람 중 누가 더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41-42절) 예수님의 질문에 바리새인 시몬은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43절)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 오백 데나리온 빚진 사람이나 오십 데나리온 빚진 사람이나 두 사람 다 빚을 졌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사람 다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질문하신 것입니다. 여자가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부은 이유는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47a절) 용서의 크기가 크다는 것은 사랑의 깊이가 그만큼 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고민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용서해 주십니다.

말씀 적용

- 1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가족과 나눠 보세요.
- 2 내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느낄 때는 언제인지 가족과 나눠 보세요.

말씀 암송

11-1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 1장 7절





가정예배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죄인인 우리 가정을 사랑하셔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부어 주신 큰 은혜를 매일의 삶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그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